

알파인스키 서덕용(남) · 이경은(여) 우승

포천시스키협회(회장 김연태)는 새해 첫 스포츠 대회로 지난 22일 포천베어스타운에서 제1회 포천시체육회장배 스키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
 ▷알파인스키 대회전 ▶초등부 저학년 남자 지승환(51'74), 김승현(58'13), 김성용(1'06'79) ▶초등부 저학년 여자 김진영(1'11'09), 최다영(1'23'88), 김지영(2'10'25) ▶초등부 고학년 남자 조웅준(46'88), 임경수(47'86), 조성열(54'29) ▶초등부 남자 서원상(38'34), 최재경(50'90), 이재인(51'40) ▶고등부 남자 변석환(40'69), 김동주(41'32), 김경국(43'24) ▶일반부 남자 서덕용(32'52), 조만석(32'93), 양원일(33'08) ▶일반부 여자 이경은(40'44), 신정숙(42'13), 최정화(43'28) ▷스노우보드 대회전 ▶중·고등부 남자 최동민(45'23), 김다솔(50'13), 고영대(53'76) ▶일반부 남자 류영봉(49'43), 이재백(50'55), 곽홍식(50'78) ▶일반부 여자 김희진(57'15), 조정미(57'74), 제현희(1'00'91). ※1·2·3위 성적순 나열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제1회 포천시체육회장배 스키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상장과 부상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포천 바이애슬론팀 전국동계체전 석권

일동종고 윤정빈, 최춘기 · 일동중 김한울 2관왕

일동중학교와 일동중학교고등학교 바이애슬론팀이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된 제86회 전국동계체전 남자중학부와 남자고등부를 석권하는 등 선전을 펼쳤다.

일동중고는 23일과 24일 최춘기(2년)가 개인전 20km에서 1시간06분58초8로, 윤정빈(2년)이 스프린트 10km에서 29분14초5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고, 지난 25일 22.5km계주에서도 최춘기, 윤정빈, 김경열(2년)이 출전해 1시간09분29초6으로 우승해 전종목을 휩쓸었다.

일동중학교 김한울(3년) 선수는 23일 개인경기 10km와 26일 15km계주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국가대표인 최춘기와 윤정빈은 이번 체전에서 나란히 2관왕에 올랐고, 남중부 김한울 선수 또한 2관왕을 차지하는 등 기염을 토했다.

특히 22.5km 계주에서 우승한 윤정빈, 최춘기, 김경열 선수는 일동 중 3학년 시절 동계체전 개인전 5km에서 나란히 1·2·3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완벽한 팀워크를 구사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포천은 일동중과 일동중고, 영북중 선수로 구성된 바



남자고등부 22.5km 계주에 출전한 최춘기, 윤정빈, 김경열 선수가 1시간09분29초6으로 우승한 뒤 금메달을 손에 들고 기뻐하고 있다.

바이애슬론 선수단 18명이 참가, 바이애슬론 부문에서 강원도에 밀려 종합2위를 차지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일동중고 김광명 코치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가 만족한다"며

"오는 3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탐방 | 지역체육회 ④ 이동면 체육회 회장 오선일

종목의 執中을 통한 효율의 極大化



오선일 회장
 이동면 체육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선일(50·사진) 회장으로 부터 이동면 체육회의 현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동면체육회는 당연직 이사로 이장

20명과 기관단체장 등 총 67명의 이사로 구성된 지역체육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동면체육회는 배구동호회인 백구회와 축구동호회인 이동면조기축구회·국방보조기축구회의 2개팀, 면 족구동호회, 면 배드민턴 동호회, 면 테니스 동호회 등이 비약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족구동호회는 지난해 10월 체육회장배 대회 우승이후 지난 26일 창단식을 갖는 등 동호인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면체육회가 여러 동호회를 지원하는데는 예산문제 등 각종 어려움이 당면해 있다. 실제로 이선일 회장은 지난해 찬조금 문제로 벌금을 부여받기도 했다.

이선일 회장은 "면 체육회가 부족한

자금을 인해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며 "예산문제 등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대안이 지역의 기업인 등을 이사로 영입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런 이사 영입 등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 "시에서 주최하는 시민체육대회 2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며 "더욱이 면 자체 행사 등을 위해 행사가 15개 정도 예정돼 있는데 자체 예산이 넉넉지 못한 편이라 문제보인을 위해 이사영입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면체육회에 속한 동호회의 구성은 주로 군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특색으로 꼽을 수 있다. 오 회장은 "5군단 사령부 등이 위치한 지역 특성상 생활체육인구는 주로 군인들이 주축을 이룬다"며 "각종 대회 출전시 군인들의 선수지원 등 선수수급에 있어 군인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동면 체육회에 있어 군인 선수의 수급문제는 지역경제와도 연관이 있는 실정에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 회장은 "지난해 민·관·군 족구

대회를 개최해 군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며 "이런 체육활동을 통해 군인들과의 교감이 생긴다면 군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와 주택들이 이 동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 역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동면체육회가 2005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시민체육대회와 면민체육대회 등에서 순위권에 들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종목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오 회장은 "올해 대회는 축구, 축구, 테니스 종목 순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며 "이런 방법은 체육기반이 낮은 읍·면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한편 진정한 지역 체육회의 발전은 동호인들의 참여와 협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오 회장은 "이동면의 각 동호회 회장들이 이사회에 참여해 일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쟁력 있고 유망 종목의 육성 등 집중화와 함께 지역 체육인들이 먼저 화합하고 단결하는데 더욱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4 종목별체육회장

포천시배드민턴연합회

양호식 회장

동호인 擴大와 엘리트체육 육성위해 노력

1996년 3월에 창립한 포천시 배드민턴연합회는 2005년을 동호인 확대와 엘리트체육인 양성의 새로운 원년으로 삼고 어린 꿈나무 육성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해로 삼고 있다.

포천시배드민턴연합회는 2004년 12월 현재 가산, 반월, 소흘, 일동, 제일, 초가, 포천, 한마음의 8개클럽 500여명의 회원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생활체육으로서 배드민턴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3년 제3회 회장으로 취임한 양호식(47·사진) 회장으로 부터 포천시배드민턴연합회의 발전상과 2005년의 목표 등에 관해 들었다.

양호식 회장은 양호식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드민턴 경력 5년 차인 아마추어 선수로 회원들의 높은 신망으로 배드민턴연합회 회장에 취임하게 됐다.

양 회장은 현재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운동공간의 확보일 것이라며 "일반인들은 흔히 배드민턴을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동호회에 가입하고 실제로 운동을 하려면 실내 운동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포천에서 배드민턴 동호회가 구성돼 운동하는 공간은 포천고, 포천중, 포천초, 일동중고, 가산초, 이동중 등의 학교 체육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일부 미등록 팀 동호인들은 공장건물을 활용,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 회장은 "2005년은 배드민턴 동호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며 "현재 이동, 관인, 포천중 자모모임인 은형, 고인돌 클럽 등이 창단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단되어 연합회에 가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클럽창단과 연합회 가입에 발맞춰 양회장은 "신규창단의 경우 편의를 위해 스폰서제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며 "스폰서제란 새로 창단하는 팀에게 인근 클럽에서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배드민턴연합회는 포천여중과 포천고로 이어지는 엘리트체육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올해 연합회장기 초등학교 배드민턴 대회를 창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발굴된 어린 학생들이 포천의 배드민턴 인프라에 편입, 활용



양호식 회장
 포천시배드민턴연합회

된다면 포천의 배드민턴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는 양 회장의

"이런 일련의 선수 육성과 발굴을 위해 배드민턴연합회는 포천의 초·중·고에 각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정관계 등과의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양 회장은 "관내에 분포된 선수출신 동호

인들을 응집시켜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회를 구상하고 있다"며 "대회는 아마추어와 엘리트 체육인의 혼합경기로 주말리그 방식으로 치러지며, 기말이나 연말에 최강전을 펼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기가 가능한 이유를 양 회장은 "포천은 학교팀부터 실업팀까지 다양한 계층에 순환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순회성장의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회장은 배드민턴을 배우려는 초보 체육인들에게 "포천에는 각 클럽별로 선수출신의 플레이 코치가 있다"며 "기초훈련부터 받아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재미있게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각 클럽팀원들에게는 회원 간 단합을 강조하며 "운동을 통해 많은 이웃을 만나는 만큼 불협화음을 없이 서로 배려하는 자세로 운동에 전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회장은 끝으로 "배드민턴 팀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는 관내 학교들에 감사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지난해 12월 23일 개최된 포천시배드민턴 육성기금 마련을 위한 모임 및 후원회 발족 행사.

365일, 경기도에서 펼쳐지는 끝없는 축제

4/16~4/30 한국 교향악 전시회 포주공예교당전시관 www.kowar.or.kr	4/29~5/8 2005 국제연락회 43302호 www.motorshow.or.kr	4/23~6/19 세계도시비엔날레 이천공예관 전관 및 주변 일대 www.nccel.com	5/4~5/8 연천전통민속축제 경기도 연천군 www.yc21.net	7/14~7/23 부천국제민속축학회 부천시 일직로 10 www.gilmi.com	8/5~8/15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 북한산 문화관광마을 www.nsoa.or.kr	8월~9월 세계민속대전 포천시 일직로 10 www.gjfest.or.kr	9/23~9/28 2005 과천 한마당축제 과천시 일직로 10 www.gjfest.or.kr	10월 초 수원화성문화제 수원 화성 일동 www.suwon.or.kr	11/5~11/9 연성바우처축제 연성바우처 www.baucheri.com
---	---	--	--	---	--	---	--	---	---

2005년엔 경기도와 친구가 되세요!

2005년은 경기방문의 해, 수많은 축제와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경기도로 오세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숨쉬는 곳, 경기도에 오시면 2005년이 즐거워집니다. 대한민국 체험학교 - 경기도

2005 경기방문의 해 www.visit2005.com

경기도 경기관광공사